

EU,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 덤핑규제

11월28일부터 17.1%-42.1% 6개월간 부과 ...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

유럽연합(EU)이 11월27일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반덤핑관세를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는 유럽시장에 내수가격 이하로 진입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대해 17.1%-42.1% 관세를 11월28일부터 6개월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EU는 2014년 5월27일까지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태양광 패널과는 별도로 태양광 판유리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U 태양광 생산기업 모임인 프로선(ProSun)이 중국의 태양광 판유리 생산기업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받아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한다고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EU의 태양광 판유리 시장은 2억유로에 달해 중국제품 수입금액 2900억유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반덤핑 분쟁이 다른 상품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에게는 미국 다음의 교역 상대국으로 중국의 EU 수출은 2012년 2900억유로, 수입은 1440억유로에 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8>